

목포시, 맞춤형 장애인 복지정책 박차

공공어린이 재활센터 건립 4개 유형 일자리 사업 추진 등 을 525억원 투입 서비스 강화

목포시가 장애인과 그 가족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오는 2024년 건립 예정인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72억원)에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개설해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의료인력 17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장비(75종)와 시설을 구비해 전문적 치료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거리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가족난민, 잦은 이직 등 장애아동 가족의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등 효과가 기대된다.

또 4개 유형(일반·복지형, 안마사 파견, 전남형 권리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미취업 장애인 453명에게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지난해 대비 참여자가 60명 늘어났고, 예산도 6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전남형 권리 중심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장애인 20명이 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강의·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포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단기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급식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시는 또 보호자 부재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을 운영한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종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바우처(이용권) 서비스를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시간당 단가 인상과 대상자 지속 확대 등을 통해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돼 발생하는 급여 감소 등

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보전 급여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 서비스를 확대(기본형 월 125시간)하고,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임대 서비스 등의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 가정이 행복한 복지 추진에도 나서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했으며,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 아동수당도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씩 인상했다. 또 올해 신규 시책으로 발달장애인의 적성 개발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가족의 목소리를 경청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다양한 복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성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선박 통항로에 설치된 교량의 항로표지시설.

목포해수청, 봄철 농무 대비 항로표지시설 점검

진도·완도권역 시설 200기 대상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봄철 농무 등에 대비해 낚시어선과 여객선 이용자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항로표지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항로표지시설이란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불빛, 색깔 등을 이용해 항해자의 항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일교차가 큰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다 안개는 인적·물적 해상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업, 레저 활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목포해수청은 진도·완도권역 어선과 여객선 등

의 주요항로에 위치한 국가관리 항로표지시설과 사유 항로표지시설(개인이 자기 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항로표지시설) 200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개 발생 시 가장 큰 위해요소인 선박 통항로에 설치된 교량의 항로표지시설과 최근 해상풍력지원 조사를 위해 설치된 구조물의 항로표지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봄철 안전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어업인들의 안전조업과 국민들의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5개월만에 매출 10억 대박

수익 90% 생산농가 지급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해남군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5개월만에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대박을 냈다.

해남군은 지난해 9월 13일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 20일 기준 10억 417만여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월평균 2억원이 넘는 운영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매장은 해남 지역 380여 농가에서 48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일 오전 7시부터 당일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과일과 신선채소, 곡류 등 농산물이 4억 5400여만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육류 2억 7700여만원(28%), 가공품 2억 1500여만(2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직매장 매출액의 90%는 생산농가에게 직접 지급하면서 중소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특별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품목별로 10~16%의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농가에 정산되면서 농가에는 9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은 명현관(왼쪽 두번째) 해남군수가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직매장은 해남군에서 전액 출연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직매장 출하 품목은 매일 40건의 농약잔류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신규 회원가입 포인트

지급, 소비촉진 특판 및 이벤트 확대 등을 통해 고정 소비층을 확보해 안정적인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8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인 지역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해남 2030 푸드플랜'을 추진해오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신안 압해도에 꽃장식 전문 교육기관 들어선다

방식예술원 신안캠퍼스 착공

신안군 압해읍에 꽃장식 전문 교육기관인 '방식예술원 신안캠퍼스'가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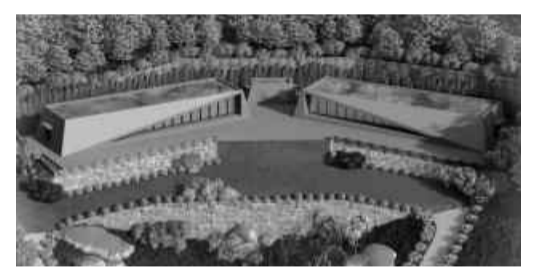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박우량 신안군수와 방식예술원 방식 원장, (주)방식테마가든 조인택 대표 등 관계자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방식예술원 신안캠퍼스' 착공식이 열렸다.

방식예술원 신안캠퍼스는 압해를 대청리 2만 4193㎡의 부지에 민간자본 43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국내외 꽃장식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실, 작업실, 식물원, 관리동 등이 조성된다.

방식예술원의 방식 원장은 독일이 인정한 정원 명장이자 동양인 최초의 마이스터 플로리스트이다.

지난 1972년부터 현재까지 50년 동안 꽃과 자연



미술 전시실 조감도.

을 소재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꽃장식 예술가로, 88서울올림픽 개폐회식의 꽃장식을 담당하기도 했다.

방식 원장은 "신안군의 4계절 꽃피는 바다 위 정원 플로피아 정책에 조금이나마 힘을 더하고, 신안 캠퍼스를 꽃 예술 전문가의 산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우울심리 클리닉' 선정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선정한 '청소년 불안·우울 집중 심리 클리닉'으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센터 중 전남에서는 영광군과 순천시가 선정됐다. 센터는 청소년 불안·우울 집중 심리 클리닉 선정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부터 불안·우울 등 고위기 청소년 상담 매뉴얼 교육과 컨설팅, 수퍼비전 등을 지원받는다.

지역 내 고위기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상담 개입과 효과성 측정 등 우수한 심리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해 청소년 상담전문센터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진도군, 관광지 24곳 모바일 앱 인증 특산품 증명

진도군이 소규모·비대면 스마트 관광 서비스 수요 증대에 발맞춰 진도 관광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선보인다. 진도 관광 스탬프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방문, 스탬프를 찍고 기념품을 수령하는 현장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이번 출시된 모바일 안내 서비스는 기존의 종이 리플릿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관광객들에게 투어 참여의 편의를 제공해 관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총 24개 관광지 지점으로 구성됐으며 다양한 선

물을 제공, 진도 관광의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스탬프투어에 참여하려면 휴대전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 앱을 검색 후 설치하고 '진도군 스탬프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진도군민을 제외한 관광객이 대상이며 주요 관광지 24개소에서 ▲18개 이상 모바일 앱 인증완료 시 3만원 상당 ▲15개는 1만5000원 상당 ▲10개 이상은 1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지급한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